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업계, 증시상장 열기 재점화

- 2007년 이후 부진했던 중국 보험회사들의 중국증시 상장 열기가 최근 다시 일어나고 있어 주목됨.
 - 중국생명, 핑안보험, 타이핑양보험 등 메이저 보험 3사가 2007년 상하이 증권시장에, 곧이어 중국인민보험공사가 홍콩 H주식시장에 각각 상장된 이후 보험회사들의 상장은 지지부진했음.
 -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텐핑보험(天平保險)과 인민보험그룹(人保集團)이 조만간 증시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특히 중국재보험그룹(中再集團)과 AIA, 타이핑양보험은 홍콩 H주식시장 상장을 목표로 상장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인민보험그룹은 공식적인 발표 없이 내부적으로 증시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, 텐핑보험은 올해나 내년 초에 손생보를 통합한 지주회사 형태의 상장을 목표로 가장 적극적으로 증시상장에 나서고 있음.
 - 최근 텐핑보험이 증권사인 귀타이취안(国泰君安)과 상장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한 텐핑보험의 대주주인 텐마오그룹(天茂集團)은 주권변경을 통해 손생보를 통합한 지주회사 형태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주식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보험회사들 중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됨.
 - 인민보험그룹 역시 구체적인 상장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올해 초 그룹 내 보험회사들의 일괄상장을 목표로 지분구조 조정을 거쳐 올해 6월 중국보험감독관 리위원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주식상장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- 최근 보험회사들의 상장 움직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금으로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충당됨으로써 상장 회사들은 지불능력을 확보하는 한편,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한 경영환경 대처에 필요한 사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어 중국 보험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베이징상보, 9/17)